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6월 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속옷과 수영복을 만들어 파는 미국 회사 에어리(Aerie)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광고·홍보 전략으로 2014년부터 '진짜 몸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몸매의 속옷 모델을 내세우고, 모델 사진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뽀샵'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보통 말하는 깡마른 환상적인 몸매의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체구의 모델을 내세워 있는 그대로, 보정하지 않은 채 광고한 것입니다. 이 광고 마케팅 전략으로 연매출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요. '진짜 몸매' 전략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판매 증가량이 6%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보정을 거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진짜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회사의 분석입니다. 실제 광고 사진을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몸매입니다.

제품 판매량이 왜 늘었을까요. 소비자들의 어떤 내면의 욕구 또는 진정성이라는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인위적인 보정, 여성미에 대한 일방적 기준 강요, 겉모양 최우선주의, 남을 의식해야만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거부감을 슬쩍 자극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잣대를 강요하는 주류적 시각에 대해 일종의 비주류의 욕구를 작동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종의 전략 목표였던 것입니다.

좀 다른 듯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요즘 특이한 형태의 동네 책방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데다,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일부 대형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책방이 문 닫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뉴스도 아니지요. 그런 서점 불황인데도 특이한 컨셉으로 운영하는

책방이 흥대 앞 등 일부 동네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군요. 북카페 스타일로, 개인 서재 겸 보통 사람들의 휴식처 개념으로 또는 돈은 못 벌어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독립출판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도 서점으로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치를 물질적 성공에 두고 이를 향해 치달는 세상의 주류적 가치와는 다른 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비주류의 주류 문화에 대한 반감이랄까, 아니면 다른 가치를 찾는 여유랄까,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거래로 폭풍 성장을 보이는 공룡기업 아마존도 지난해 11월 '아마존 북스'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서점 1호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3곳을 열었는데, 앞으로 300~4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대 앞에서 두세 블록 떨어진 상수동이 뜬 지는 제법 됐습니다. 주택가였던 이곳에 소규모 카페, 자그마한 와인 집 등이 여러 곳 생기기 시작한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으로 조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구도심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제법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카페 등이 인기를 얻는 이유도 어찌 보면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서 사는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일상에서 소소한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 등이 작용해서겠지요. 소규모 카페 등이 인근 합정동 망원동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찾기는 찾는 모양입니다.

이런 현상을 아직 어떤 흐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잣대, 획일적 기준, 거대 물

량주의, 인위적인 것, 남과의 비교, 타인 시선을 의식하는 삶 등등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확대하자면 천편일률적 주류에 피동적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나의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과지상주의, 효율성 극대화 같은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달려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치들만으로 더 진전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창의적 생각과 여유, 배려와 내면적 가치, 나눔 같은 요소들을 가치로 추가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더 무게 있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상수동 카페거리



소규모 카페가 늘어난 상수동 풍경